

보도시점 2026.4.21.(화) 11:00 < 4.22.(수) 조간 > 배포 2026. 4. 21.(화)

산업부, 민·관 합동 광산 집중안전점검 실시

-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및 취약시설 점검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4월 21일(화) 13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세종언더그라운드 광산을 방문하여 광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점검단과 함께 광산 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광업분야 민간 전문가 및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단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 갱내 취약작업장과 노후 광업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김종철 자원산업정책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광산의 광물 자원은 국가 기간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마중물로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광산현장이 재해로 인해 멈추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관리자는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며, 산업부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자원 3개분야(광산, 석유, 가스) 시설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소관과,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5260)
	석탄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이명진	(044-203-5264)